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¹⁾

이승윤(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미경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수료

김윤영(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여 청년 노동시장

1)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15S1A3A204656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의 불안정성이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청년들의 불안정성에는 특히 소득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분석되었다.

패널로짓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청년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은 남성, 저연령, 저학력 집단이었고 직업적으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산업적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의 불안정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턴제 등과 같은 고용 및 취업촉진 정책을 면밀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 논의가 선차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 집합이론, 서비스경제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연애·출산·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의 삼포세대를 비롯하여 연애·출산·결혼·인간관계·내집마련을 포기한 오포세대, 이에 더하여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을 표현한 ‘인구론’, 알바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들을 표현하는 ‘알부자족’ 등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불안정성도 신조어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이 많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축적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금수저’, 빈곤한 부모 슬하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등 청년들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자조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신조어들은 현재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의 불안정성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서비스경제로 진입하면서 기술의 발전,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 노동수요의 증대 등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 기반의 산업사회에서 표준적으로 통용되던 정규직 고용관계와는 전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들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그러나 서비스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등장한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단순히 비정규직의 확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법적 고용관계를 회피하려는 ‘가짜 자영업’, ‘삼각고용 관계’ 등 현재 새롭고 다양한 고용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서정희·박경하, 2015). 이렇게 새로 등장하고 있는 고용관계들은 현재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비스경제 기반의 한국노동시장에서, 이러한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고용계약 형태들,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및 일의 형태들은 청년층에게서 주로 경험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용형태의 다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히키코모리, 프리터, 니트족 등 청년층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삶의 변화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고용 및 일의 형태 다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시점에서, 표준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비정규직, 또는 취업준비생, 취업단념자 등으로 분리할 경우 기존의 많은 논의들처럼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적절히 포착할 수 없다.

새로운 고용관계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는, 기존의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인구집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경험 또한 특히 청년층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비경제활동 인구들 중에서도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포기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프리터족, 니트족 등 기존의 노동계약관계에 포괄될 수 없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노동시장의 고용 및 일의 형태를 전면에서 경험하고 있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고용 및 소득불안과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한국 청년들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맞춰 발전해온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측면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 하려는 논의들(백승호, 2014; 백승호·이승윤, 2015)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불안정 노동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불안정 노동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태로 규정되기도 하고(Kalleberg, 2009: 2),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임의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훈련, 낮은 협상력,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Kroon & Paauwe, 2013). 그리고 비표준적 고용관계, 비전형

고용관계, 취약한 노동(vulnerable work), 일용노동(disposable work), 임시노동(contingent work)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취약해진 노동과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정의되기도 한다(Wayne & Green, 1993; Kalleberg, 2000 등). 이들은 주로 불안정 노동을 고용형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 개념을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에는 서비스 경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백승호, 2014). 비정규직에게 다양한 불안정성의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개념은 고용형태의 불안정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 세계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고용형태나 임금 뿐 아니라 복지 및 생산체제의 제도적 구성과 이들의 결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Davidsson & Emmenegger, 2012; 김영미, 2010). 따라서 불안정 노동의 다양한 차원과 그 조합에 주목하여 노동의 불안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백승호·이승윤, 2015).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청년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어느 정도 불안정하고 어떠한 요인이 이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국 청년노동시장과 불안정 노동

1. 한국 청년의 삶과 청년 불안정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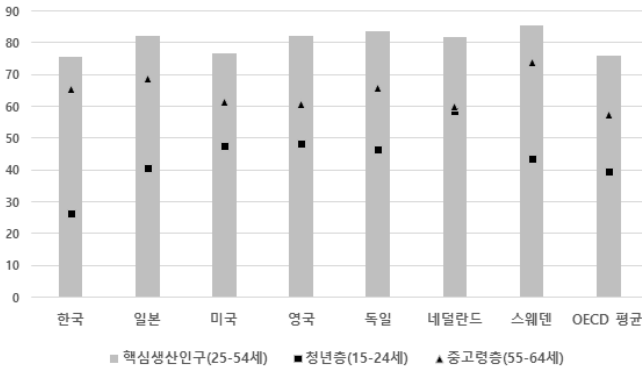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용에서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삶의 불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최근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대변해주는 현상 중의 하나로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히키코모리 등의 선택을 통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들 수 있다(이승윤 외, 2016). 청년 NEET족의 비율은 OECD 34개국 중 7번째로 높다. 특히 한국은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24%로 비교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 약 13%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주로 저학력일수록 니트족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OECD는 이를 두고, 분절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한국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음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한다(OECD 2016).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2015년 기준으로 70.8%로 매우 높으면서(교육부, 2015) 청년고용률은 42%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 해준다.

청년 실업률 또한 매우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월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9.5%로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5년 1월의 9.2%보다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1999년 공식 통계 집계이후로 가장 높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를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청년층에서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정·김안정, 2016). 여기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2015년 청년 실질 실업률은 2014년 청년 공식 실업률 10.2%의 세 배보다 많은 30.9%에 달한다(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국가 간 고용률 수치를 비교해보아도, 한국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니트족을 포함한 실망실업자나 구직포기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지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률 지표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한데, <그림 1>은 국가 간 연령별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주요 국가들의 핵심생산인구(25-54세) 고용률은 모두 7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

〈그림 1〉 국가 간 연령별 고용률 비교(2014년 기준)



※ 출처: OECD(2016).

용률의 경우에는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령층과의 편차도 타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 특정 연령별로 한국의 고용률 수치와 OECD국가 평균치를 대비해보면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이 26.2%이고 OECD국가 평균 청년 고용률이 39.7%로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았으며,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한국이 65.7%, OECD국가 평균이 57.5%로 한국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 한국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 타 연령층에 비해서도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 고용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취업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독 청년층에서만 감소율이 두드러진다(통계청, 2016).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취업한 15~29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8년 만에 10%p가 높아졌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임금근로자 중 29세 이하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보수적인 통계치를 제시해주

고 있는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33.6%에서 2015년 35%로 증가 추세에 있다(이승윤 외, 2016).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의 수는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청년층이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대학 졸업자의 학업연장이나 취업연기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새로운 빈곤집단으로써 청년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김수정, 2010). 과거와 달리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조차도 노동시장에서 희망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은 소득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확대되어왔고 이는 소득의 악화로 이어져왔다(반정호, 2010). 소득 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오직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만 2015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6). 월 급여 수준도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청년층 근로자의 비중은 2016년 30% 수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연령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난 5년간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변화가 없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은 또한 사회적 보호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2013년 이후로 사회보험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이승윤 외, 2016).

뿐만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감소는 청년들의 소비지출 불안정을 야기한다. 특히 청년들의 소득불안정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 시킴으로써 극심한 주거빈곤으로 이어진다(이수욱·김태환, 2016). 부모로

부터 경제적 자본의 이전이 어려운 빈곤 청년의 경우 극심한 주거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청년들의 36.3%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들은 주로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란수, 2013). 청년들의 소득 불안정은 교육비로 인한 부채 문제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 교육비 관련 가계 부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2014).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의 경우에는 2005년 5천 억 원이었던 대출 잔액이 2012년 11조 3천 억 원으로 7년 만에 23배 증가하였으며, 대출 받는 학생의 수는 약 10배 증가했다(조영무, 2014). 과거에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교육비 관련 대출금 상환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듯 청년세대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소득 수준, 사회보험 배제, 소비지출의 불안정성 등 다차원적으로 삶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이러한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해 왔다. 다음 절에서는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2. 한국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이 청년층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되면서(Matsumoto et al., 2012) 확대되어왔다. 먼저 청년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년들의 고용활성화에 주목해왔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박지애·남춘호, 2015; 박미희·홍백희, 2014; 오성욱, 2013; 이병희, 2011; 이상준·김미란, 2010; 김경휘, 2009; 반정호 외, 2005), 청년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변금선, 2015; 심재휘·김경근, 2015; 이자형·이기혜, 2013; 황여정·백병부, 2008; 이병희, 2003)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

행과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결정요인, 직업선택과 만족도 그리고 노동이동 및 고용전환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업 경력 형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청년층의 교육수준, 소득 계층에 따른 정규직 취업 및 임금수준에서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최근 확대되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실업(김유빈, 2015; 신선미 등, 2013 등) 및 NEET(정준영, 2015; 최용환, 2015) 그리고 고용불안정(금재호, 2013; 박성재·반정호, 2012; 남재량·김태기, 2000)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불안 및 빈곤 문제(강순희, 2016; 김수정·김영, 2013; 백학영, 2013; 이현욱, 2013; 노혜진, 2012; 변금선, 2012; 김수정, 2010), 청년주거문제(최은영, 2014; 최병숙 등, 2013; 정민우·이나영, 2011)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 연구들과는 달리 청년 정책을 고용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승윤 외, 2016; 김성희, 2009). 김성희(2009)는 한국의 실업자 지원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자를 포함하여 일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승윤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생활비용을 산출하여 어느 정도의 소득보조가 바람직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과 관련된 주류 연구들이 '청년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고용증진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이들 연구들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고 있지 못하였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고용, 소득 등의 단일한 차

원에서의 불안정성을 강조할 뿐, 고용, 소득 사회보험 배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은 드물다. 앞서 설명했듯이 변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을 최전선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이며(Matsumoto et al., 2012),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기 이후 삶의 불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체와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3. 노동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에 대한 기존 연구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태로 규정되기도 하고(Kalleberg, 2009:2),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임의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훈련, 노동자의 협상력이 낮고 저임금이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Kroon & Paauwe, 2013). 그리고 비표준적 고용관계, 비전형 고용관계, 취약한 노동(vulnerable work), 일용노동(disposable work), 임시노동(contingent work)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취약해진 노동과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정의되기도 한다(Wayne & Green, 1993; Kalleberg, 2000 등). 이들은 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형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에는 서비스 경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 불안정성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백승호, 2014). 그 이유는 불안정한 상태(the state of precarity)가 정치경제, 사회적 맥락과 국가의 노동시장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ILO, 2011: 5). ILO(2011)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불확실성(uncertainty), 불안전성(insecurity)을 키워드로 정의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고용계약 형태(Contractual arrangements)의 불안정성이다. 여기에는 제한된 계약기간(단기, 기간제, 임시직 등), 불안정한 고용

계약관계(삼각계약관계 등)가 포함된다. 불안정성은 불안정한 노동조건들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저임금, 낮은 수준의 고용 및 사회적보호, 노동권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ILO, 2011).

이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계약 형태, 임금 및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백승호, 2014).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 불안정성 각각의 차원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거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계약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에서의 차별과 사회적 보호에서의 배제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 임금, 사회적 보호 사이의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은 경제주체들이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이다(Eichhorst & Marx, 2012). Eichhorst & Marx(2012)는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기간제나 파견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시간제 근로 등 전일제 고용에서 벗어난 고용전략을 활용하는 방법, 셋째,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고용을 활용하는 방법, 넷째,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에서 임금유연성을 확대하는 전략, 다섯째, 근로연계급여,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부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공공예산으로 전가하는 전략이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고용, 임금,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과 관련되며, 노동의 불안정성은 이들 세 가지 불안정성의 조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인해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면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고용 불안정성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과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면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차원의 조합을 통해서 불안정 노동을 재정의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크게 고용, 임금 혹은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의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함에 있어 이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법을 취한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이나 임시고용은 고용 관계나 고용 기간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는 고용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갖는다. 그러나 불안정 고용이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규칙,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는 임금이 높은 안정성이 고용의 불안정 효과를 일부분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합 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5차(2002년)부터 17차(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적 통계들을 제시할 때는 2002년과 2014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10여년간의 변화경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패널로짓 분석에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원을 표본으로 하여 연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하는 종단면조사이다. 이 조사는 1998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2016년 19차 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조사 자료는 2014년 17차 데이터까지 배포되었다. 특히 이 조사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장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노동의 불안정성 측정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 임금 및 소득 그리고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이들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세 영역의 불안정성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우선 고용불안정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김유선(2016)의 비정규직 측정방법을 준용하였다. 그는 고용계약형태, 근로시간,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고용계약 형태로는 고용될때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기간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인 경우가 고용불안정 집합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시간제인 경우, 근로제공방식이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근로(보험설계사 등), 가내근로인 경우가 고용불안정 집합에 포함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가 4인 이하인 영업장의 자영업자나 자영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2) 상용근로자 2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 11차 이후의 자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높음을 반영함.

〈표 1〉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항목 코딩 기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통합
2002-2007					
무급가족종사자 1인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없음) ²⁾	1	1	1	0	1
상용근로자 2-4인 자영업자	0	1	1	0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0	0	0	0	0
2008-2012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4인 이하 자영업자	응답		1	0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0	0	1 또는 0
2013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4인 이하 자영업자	응답		0	1 또는 0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0	1 또는 0	

경우 고용 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임금/소득 불안정성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의 저임금 기준인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2/3 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을 경우’에 임금/소득 불안정 집합에 속한다고 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은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묻기 시작한 시점의 차이로 인해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측정은 다소 복잡한데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2008년부터, 고용보험은 2013년부터 가입여부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2007년까지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무급가족종사자와 상용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자영업자는 모두 안정하다고 보았다. 상용근로자 2-4인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조사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상용근로자 2인 이상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008년 이전 가입여부를 추론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급가종중사자와 상용근로자 4인 이하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간주하였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건강보험료의 징수율은 2016년 상반기 기준 99.3%로 100%에 가깝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보험은 모두 가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4대 보험 각각에 대한 가입 여부가 확정되면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이외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였거나 배제된 잠재적 실업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가져오는 안정성은 물론이고 소득과 사회보험의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을 배제하고서는 현재 한국의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잠재실업자는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다. 이들은 고용과 소득에서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은 법적 포괄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고, 국민연금 역시 미취업 상태에서 가입 및 납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잠재실업자들의 사회보험은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 노동 불안정성의 통합적 재구성

고용 측면의 불안정성, 임금 (또는 소득) 측면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

보험 측면의 불안정성 각각은 모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은 어떤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고용 관계를 갖는다면 ‘고용 불안정 집합’에 속하는 것이고 임금 수준이 높다면 ‘임금 불안정 집합’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은 각각 하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세 가지 집합 각각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상태를 갖게 된다. 고용 불안정 집합을 E, 임금 (또는 소득) 불안정 집합을 W, 그리고 사회보험 불안정 집합을 S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상태는 여덟 가지로 나타난다: 1) 고용, 임금, 사회보험 모두 불안정한 경우(EWS), 2) 고용은 안정하나 임금과 사회보험이 불안정한 경우(eWS), 3) 임금은 안정하나 고용과 사회보험이 불안정한 경우(EwS), 4) 사회보험은 안정하나 고용과 임금이 불안정한 경우(EWs), 5) 고용과 임금은 안정하나 사회보험이 불안정한 경우(ewS), 6) 고용과 사회보험은 안정하나 임금이 불안정한 경우(eWs), 7) 임금과 사회보험은 안정하나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Ews), 8) 세 가지 모두 불안정한 경우(ews).

본 연구에서는 여덟 가지 상태를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즉,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불안정한 1)번의 경우는 “매우 불안정”, 셋 중 두 가지 측면이 불안정한 2), 3), 4)번의 경우는 “불안정”, 셋 중 한 가지 측면이 불안정한 5), 6), 7)번은 “다소 불안정”,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안정한 8)번의 경우는 “불안정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표 2〉 참조). 이렇게 여덟 가지의 불안정성 유형을 다시 네 가지로 재분류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불안정성의 심도와 서열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년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의 심급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정성을 단순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불안정성 유형은 네 가지로 재분류함으로써 정보의 상실이 발생한다. 예를들면, ‘다소 불안정’은 그 안에 세 가지 형태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2〉 불안정노동 개념 구성

개념	구성요인	측정	
불안정 노동	고용 (E)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및 각종 상여금 및 휴가, 휴직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적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4인 이하 작업장의 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잠재실업자: 모두 불안정	
	임금/소득 (W)	-임금근로자: 전체 임금근로자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ILO 저임금 기준) -비임금근로자: 월소득을 시간당 소득을 변환하여 임금근로자와 같은 기준 적용 -잠재실업자: 모두 불안정	
	사회보험 (S)	-임금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비임금근로자: 〈표 1〉에 따름 -잠재실업자: 모두 불안정	
	E,W,S 모두 불안정	EWS	매우 불안정
	E,W,S 중 둘 불안정	EWs, EwS, eWS	불안정
	E,W,S 중 하나 불안정	Ews, eWs, ewS	다소 불안정
	E,W,S 모두 안정	ews	불안정하지 않음

이를 구분해 낼 수 없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불안정성 차원의 어느 한 측면만 주목하지 않고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패널로짓분석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네 가지 불안정성 유형에 대한 기초적 분석 이후에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로짓분석은 성, 연령 등 집단별로 불안정성에 직면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패널 로짓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5차년도(2002년)부터 17차년도(2014년)까지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이다. 횡단면 분석과 달리 패널분석

〈표 3〉 패널로지분석에 포함된 각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

변수명		overall %	between %	within %
종속변수				
불안정성 (n=6,795)	안정 (0)	33,3	51,6	57,6
	불안정 (1)	66,7	88,9	79,1
독립변수				
성별 (n=6,795)	남 (ref)	56,1	55,1	100
	여	43,9	44,9	100
연령 (n=6,795)	19-24세 (ref)	18,1	36,1	60,4
	25-29세	36,3	55,4	56,1
	30-34세	45,6	63,6	74,2
학력 (n=6,795)	고졸 이하 (ref)	29,1	31,4	96,5
	대졸 이상	70,9	70,5	98,9
기업 규모 (n=5,463)	4명 이하 (ref)	18,3	32,7	63,4
	30명 미만	30,6	47,8	63,7
	100명 미만	14,8	28,6	50,5
	500명 미만	14,2	26,7	50,1
	500명 이상	22,2	31,6	66,7
직업 (n=6,093)	관리자	0,4	0,7	69,1
	전문가	19,7	23,4	82,8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5	20,1	71,5
	사무 종사자 (ref)	24,9	30,1	79,4
	서비스 종사자	8,2	13,1	69,2
	판매 종사자	9,1	14,2	68,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	0,9	7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6	10,2	72,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8	12,7	72,8
	단순 노무 종사자	5,2	9,0	65,6
산업 (n=6,078)	제조업 (ref)	21,9	26,3	78,0
	도매 및 소매업	15,3	21,7	72,8
	교육 서비스업	11,5	14,0	81,1
	사업 서비스업	9,8	13,4	7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8	9,1	83,4
	기타	33,7	43,2	80,7

의 장점은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인과관계의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에 성별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속성의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패널로짓분석을 위해 네 가지 불안정 그룹 중 매우 불안정, 불안정, 다소 불안정 그룹은 불안정 집단(1)으로, 불안정하지 않음 그룹은 안정 집단(0)으로 나누어 이분형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고용, 소득, 사회보험 중 한 가지 이상에서 불안정한 경우는 불안정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나이, 학력, 기업규모, 직업, 그리고 산업이다. 본 연구는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패널로짓분석에서는 19-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로 나누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기업규모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4명 이하, 30명 미만, 100명 미만, 500명 미만, 그리고 500명 이상으로 나누었다. 직업과 산업은 각각 표준직업분류(5차 개정)와 표준산업분류(8차 개정)의 대분류 기준에 따랐다. 이상의 각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IV. 불안정 청년노동시장 분석 결과

1. 불안정 청년 노동시장 기초분석

먼저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2002년과 2014년 각각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87%와 93%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잠재실업자의 증가가 주목할 만한데 2002년 전체 인구의 5%에서, 2014년에는 1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 청년의 문제는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 일자리가 갖는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들이 갖는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소폭 증가

〈표 4〉 한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

		2002년			2014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경제활동상 태	취업	52.5	28.7	23.8	50.8	24.8	26.1
	실업	2.1	1.1	1.0	3.0	1.7	1.3
	잠재실업 및 장기실업	5.0	2.8	2.1	11.8	5.9	5.8
	비경제활동	40.4	15.6	24.8	34.5	14.3	20.2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87.3	47.5	39.9	93.3	44.5	48.8
	비임금근로자	12.7	7.2	5.5	6.7	4.2	2.5
종사상지위	상용직	74.1	40.7	33.3	76.0	36.7	39.3
	임시직	10.0	4.4	5.7	15.0	6.9	8.1
	일용직	3.3	2.4	0.9	1.9	0.9	1.1
	고용주/자영업자	9.3	6.0	3.4	5.7	3.4	2.3
	무급가족종사자	3.3	1.2	2.1	1.4	0.9	0.5
산업	농림어업	0.8	0.7	0.1	0.2	0.2	0.01
	제조업	27.5	19.9	7.6	24.7	18.7	6.1
	서비스업	71.7	33.7	38.0	75.0	29.8	45.2
직업	관리자	17.4	7.1	10.3	24.8	9.9	14.9
	전문가	13.9	7.2	6.7	18.0	9.4	8.6
	기술공 및 준전문가	24.6	10.3	14.3	23.7	7.0	16.7
	사무종사자	8.4	4.3	4.1	7.6	3.3	4.4
	서비스종사자	10.3	4.4	5.9	7.7	3.1	4.7
	판매종사자	0.6	0.6	0.1	0.2	0.2	0.0
	농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8.2	7.1	1.1	5.5	5.0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3	8.3	2.0	7.7	6.9	0.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7	4.6	1.1	4.6	4.0	0.7
	단순노무 종사자	5.7	4.6	1.1	4.6	4.0	0.7

한 가운데, 임시직이 5% 포인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른 인구집단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서비스업에서 70% 이상이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2년에 비해 남성들의 서비스업 종사비율은 4% 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 청년의 경우 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들은 고숙련 직업인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과 저숙련 직종인 서비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수직적 직업계층 분할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표 5〉는 노동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인 고용, 임

〈표 5〉 불안정성 속성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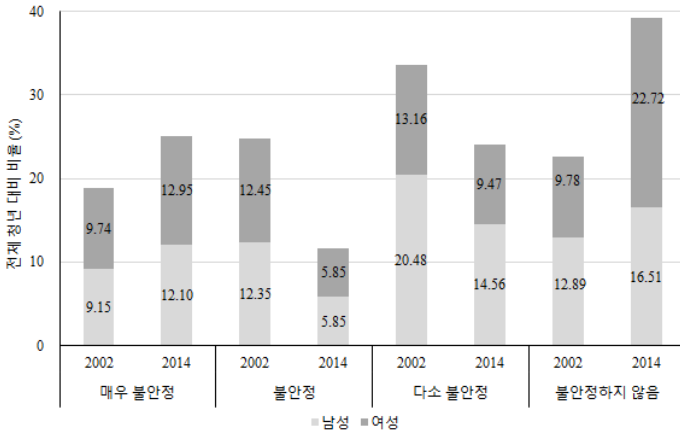
		2002			2014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험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험
합계		49.43	31.82	58.67	47.52	35.08	39.96
성	남성	28.91	14.89	28.83	25.83	16.80	19.92
	여성	20.52	16.92	29.84	21.69	18.27	20.04
연령	19-24세	12.72	12.89	16.80	14.84	14.02	13.25
	25-29세	15.92	10.23	20.05	18.07	13.96	14.37
	30-34세	20.79	8.70	21.81	14.62	7.10	12.34
학력	고졸이하	19.44	15.54	25.61	5.00	3.83	8.46
	대졸이상	25.23	9.82	33.10	30.42	16.26	31.49

*100=전체 청년 취업자 + 잠재실업자

금/소득, 사회보험 각각에서 불안정성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용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은 감소한 반면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은 2002년 58.67%에서 2014년에 39.96%로 크게 줄었다. 잠재실업자의 경우 2002년과 2014년 모두 사회보험 측면은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규모 감소는 잠재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사회보험 배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포괄범위 확대 등 제도개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과 소득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측정된 잠재실업자의 비율이 2014년에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의 불안정성이 감소한 것은 고용 측면에서 취업자의 불안정성 감소폭이 잠재실업자의 증가폭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체 소득 불안정성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년 취업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감소하였으나 그 정도가 소득 불안정성을 낮출 만큼의 임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고용이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는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노동 불안정성 속성별, 성별, 연도별 규모 변화



한편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성, 연령,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 불안정성의 경우 남성의 고용불안정성은 2002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줄어든 반면 여성의 고용 불안정성은 소폭 증가하였고, 연령계층별로 보면 30-34세의 고용불안정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계층의 고용불안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의 고용불안정은 대폭 줄었지만, 대졸 이상의 고용불안정은 확대되고 있었다. 임금/소득의 경우 30-34세 및 고졸 이하의 경우 불안정성이 감소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집단들에서의 임금/소득 불안정성은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여성, 29세 미만 청년들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고용 및 임금/소득 불안정성이 지난 10여 년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고용, 임금/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2002년에 비해 2014년에 불안정그룹과 다소 불안정 그룹의 규모는 줄어들었고 매우 불안정 그룹과 불안정하지 않음 그룹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2002년의 불안정성이 역 U자의 형태였다면, 2014년에는 U자형으로 불안정성 분포가 바뀌었다.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볼

〈표 6〉 여덟 가지 불안정노동 유형별 규모 변화

유형	조합	2002			2014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매우 불안정	EWS	18.89	9.15	9.74	25.04	12.10	12.95
	eWS	6.62	2.75	3.87	2.74	1.41	1.33
불안정	EwS	16.36	8.82	7.53	6.93	3.56	3.37
	EWs	1.82	0.78	1.05	2.03	0.89	1.14
다소 불안정	ewS	16.79	8.11	8.69	5.24	2.86	2.39
	eWs	4.48	2.21	2.26	5.27	2.41	2.85
	Ews	12.36	10.16	2.20	13.52	9.29	4.23
불안정하지 않음	ews	22.67	12.89	9.78	39.23	16.51	22.72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위에 제시된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여덟 가지 불안정노동 유형의 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특징적인 점은 고용과 사회보험 두 가지가 불안정한 그룹(EwS)이 2002년 16.36%에서 2014년 6.93%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 지위의 이동은 2002년과 2014년의 불안정 유형 변화 분석을 통해 어떤 불안정 지위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2002년 EwS 유형은 절반 가까이가 2014년에도 EwS에 속해있었고, 나머지의 20% 가까이가 세 가지 모두 불안정한 그룹인 EWS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 EWS 그룹의 증가는 주로 2002년 EwS에 속해있던 사례들이 임금/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세 가지 모두 불안정한 유형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그룹의 증가는 주로 소득불안정성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02년 사회보험만 불안정했던 ewS의 경우 2002년 16.79%에서 2014년 5.24%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모

〈표 7〉 불안정노동 유형의 전이확률

$\begin{matrix} t \\ t-1 \end{matrix}$	EWS	eWS	EwS	EWs	ewS	eWs	Ews	ews
EWS	55.8	4.8	8.4	3.4	5.0	4.4	6.6	11.8
eWS	14.1	35.2	6.5	1.9	18.6	10.8	2.5	10.5
EwS	12.5	2.5	42.1	1.0	13.4	1.8	11.8	14.8
EWs	14.8	4.0	5.7	18.6	2.1	11.5	21.9	21.4
ewS	4.7	6.7	11.2	0.6	42.1	2.2	5.9	26.6
eWs	8.6	5.2	3.7	4.2	6.6	31.3	5.8	34.6
Ews	3.4	0.6	4.8	2.0	3.1	1.9	47.3	36.9
ews	3.7	0.8	3.0	0.6	5.8	4.4	14.9	66.8

두 불안정하지 않은 ews 그룹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보험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청년 노동시장에서 외부자 집단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사회보험에 포괄되는 내부자 집단의 불안정성은 감소됨으로써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U자 형태로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은 노동 불안정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안정 상태 전이확률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t-1 시점에서 매우 불안정한 유형 즉,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험 모두 불안정한 유형이 t시점에도 그 상태가 유지될 확률은 55.8%, 불안정하지 않은 유형의 경우 그 상태가 지속될 확률은 66.8%였다. 이렇게 양극단의 안정유형과 불안정유형의 상태가 시간이 흘러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상태로의 전이확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고용과 임금/소득만 불안정한 유형(EWs)으로 전이확률은 1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유형은 고용만 불안정한 유형이나 모두 안정적인 유형으로 상태가 전환될 확률이 40%이상이었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낮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안정 유형과 다소 불안정 유형에 속하는 집단들은 상태가 개선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청년노동시장에서 주목할 불안정 집단은 2014년 현재 전체의 25%에 달하는 ‘매우 불안정(EWS)’한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누가 노동시장 불안정에 직면할 확률이 높은가?

이 절에서는 어떤 집단이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확률이 높은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패널로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모델 1은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분석결과이며, 모델 2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모델 1을 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불안정한 집단에 속 할 승산비가 27% 낮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청년 여성들의 경우 좋은 일자리의 취업이 보장되지 않을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 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좋은 일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청년 남성들의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에 라도 진입하거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노동패널 자료에서도 2002년에 비해 2014년에 여성 청년 중 잠재실업자를 제외한 순수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 청년보다 더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 2>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하지 않은 여성 집단의 비율이 2002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도 관련된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4세까지의 여성 청년들은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30세 전후에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버리기도 하는 반면 남성 청년의 경우 이 시기에 노동시장에 이탈하지 않

〈표 8〉 로짓분석 결과

종속변수: 불안정성	모델 1	모델 2
	Odds ratio (std, err)	Odds ratio (std, err)
성별 (ref. 남성)		
여성	0,73*** (0,04)	0,59*** (0,41)
연령 (ref. 19-24)		
25-29	0,30*** (0,02)	0,39*** (0,03)
30-34	0,20*** (0,01)	0,28*** (0,02)
학력 (ref. 고졸)		
대졸 이상	0,56*** (0,03)	0,65*** (0,05)
기업 규모 (ref. 4인 이하)		
30인 미만		0,19*** (0,02)
100인 미만		0,15*** (0,01)
500인 미만		0,18*** (0,02)
500인 이상		0,23*** (0,02)
직업 (ref.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5,81*** (0,92)
서비스직 종사자		4,26*** (0,68)
판매종사자		4,11*** (0,52)
산업 (ref. 제조업)		
교육서비스		8,80*** (1,15)
숙박, 음식업		4,97*** (0,9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44*** (1,32)
_constant	18,83*** (1,56)	17,87*** (2,55)
rho	0,46	0,39
Log likelihood	-15008,62	-10411,962
Wald chi2	753,58***	1600,84***
Number of Obs	26,923	19,095

* 산업 및 직업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면관계상 기준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안정할 확률이 높은 3개 직업군의 분석결과만 제시하였음.

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여성의 불안정성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의 양극화 현상이 여성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의 경우 19-24세 인구 집단이 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상보다 고졸이하의 경우가 불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모델 2에 제시되어 있다. 성, 연령, 학력 변수의 결과는 모델 1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의 경우에는 종업원 4인 이하 소규모 기업 종사자인 경우 불안정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에서 불안정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에서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외에도 분석결과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불안정성을 개념화 하고 고용,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hol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불안정성 개념화를 통해 한국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청년과 '다소 불안정한' 청년의 규모는 줄었지만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여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청년들의 불안정성에는 소득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청년들의 불안

정 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패널로짓 분석결과, 청년 남성, 저연령, 저학력일 수록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종사자, 산업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단순 노무종사자의 불안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는데 이러한 직업은 일자리 질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이 많이 분포한다. 따라서 단순한 고용촉진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종사자를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제 등의 취업 촉진 정책이 일자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의 경우, 숙박·음식업과 더불어 교육 서비스업의 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역시 현재 사회서비스 확대에서 일자리 질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선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노동시장 및 일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일선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게 구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년대상 정책은 여전히 청년 문제의 해법을 청년고용에 집중하여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는 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생활보장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할 만큼 찾아볼 수 없고, 청년들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로 단기고용을 제공하는 인턴제 등의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청년 대상 정책은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5년, 2008년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9년 “청년고용추가대책”, 2014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2015년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으로 이어졌지만, 정책별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김성희, 2015). 또한 기존의 청년대상 정책적 접근

은 주로 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한국 청년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여러 불안정성 측면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복지정책의 설계를 구상할 때라는 것을 반증한다. 청년들에게서 확대되고 있는 고용 및 일의 형태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장차 사회불안과 노인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현 사회구조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 청년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 교육부, 2015,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금재호,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리뷰』4, 66-82.
- 김경희, 2009, “정규직 청년근로자의 고용특성 및 정규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22, 25-57.
- 김란수, 2013, “청년주거의 대안모델”, 『한국주거학회지』, 8(2), 13-19.
- 김성희, 2009,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 『사회법연구』, 12, 81-121.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26(3), 49-72.
- 김수정 · 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20(1), 223-247.
- 김영미, 2010,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한국여성학』26(3), 65-89.
- 김유빈, 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노동리뷰』 5-14.
- 남재량 · 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23(2), 81-106.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박미희 ·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41(4), 21-49.
- 박성재 · 반정호,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28(1), 163-190.
- 박세정 · 김안정, 2016, “최근 장기실업자 현황 분석”, 『고용동향브리프』, 2016(10), 19-35.
- 박지에 · 남춘호, 2015,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출신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16(3), 149-189.
- 반정호, 2010, “이슈분석: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가구단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2010(10), 3-15.
- 반정호 · 김경희 · 김경희,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7(3), 73-103.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64(3), 257-279.
-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18(1), 129-161.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21(2), 57-90.
- 백승호 · 이승윤, 2015, “Who are the precarious gendered precariousness in deindustrial South Korean labour market”, The 27th SASE Annual Meeting, July 2015, 2-4.
- 백학영, 20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40(3), 75-105.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

- 자의 구조』,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정희·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한국사회정책』22(4), 7-42.
- 신선미·민무숙·권소영·김호원·민현정, 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 실태와 고용정책 과제”, 『한국취업진로학회 학술대회』, 121-148.
- 심재휘·김경근, 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21(1), 113-138.
- 오성욱, 2013, “구직경로별 대졸청년구직자의 직업선택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37, 93-117.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26(1), 1-22.
- , 201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17(1), 71-95.
- 이상준·김미란, 2010, “인턴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근로형태로서의 인턴제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13(1), 1-25.
- 이수욱·김태환, 2016, “소득변화에 따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능력 전망과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규모 추정”, 『주택연구』24, 5-26.
- 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52, 365-405.
- 이자형·이기해, 2013,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비인지적 능력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14(2), 27-54.
- 이현욱, 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16(2), 105-118.
- 정민우·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45(2), 130-175.
- 정준영, 2015, “특집: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 찾기; 청년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소고”, 『노동사회』184, 42-50.
- 조영무, 2014, “미국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 『LG Business Insight』1303, 2-16.
- 최용환, 2015, “OECD 국가의 ‘청년 니트(NEET)’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26(4), 85-115.
-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107, 5-61.
- 최병숙·최은영·권지용·천현숙, 2013, “아동과 청년의 주거빈곤”, 『도시와 빈곤』104, 261-270.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은행, 2014,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 황여정·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11(2), 1-23.

Davidsson, J. B. & Emmenegger, P., 2012, “Insider-Outsider Dynamics and the reform of job security legislation” in Giuliano Bonoli & David Natali (Eds). 『The Politics of the New Welfare State』, 206-232.

- Eichhorst, W. & Marx, P., 2012, "Whatever Works: Dualis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in Emmenegger, P. & S. Häusermann & B. Palier, & M.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73-99.
- ILO, 2011,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ACTRAV BACKGROUND DOCUMENT 23,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 Kroon, B., & Pauwe, J., 2013, "Structu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in economically constrained firms: the case of Dutch agri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4(1), 19-37.
- Matsumoto, M., Hengge, M., & Islam, I., 2012, Tackling the youth employment crisis: A macroeconomic perspective, ILO.
- OECD, 2016, Labour market statistics.
- Wayne, S. J. & Green, S. A., 1993, "The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 on employee citizenship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Human Relations* 46(12), 1431-1440.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Abstract

Analysis of Precariousness in Korean Youth Labour Market ³⁾

Sophia Seung-Yoon Lee

Main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Seung Ho Bae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isty of Korea

Migyong Kim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Yunyoung Kim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precariousness of youth in labour market in Korea. To study how severe their precariousness is and how it appears, we measure the precariousness in the labour market by using holistic approach which considers all three attributes -employment relationship, wage or income, and social insurance. We study all youth aged 19 to 34 years old, including wage workers, non-wage

3)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5S1A3A2046566).

workers, and involuntary unemployed, but excluding voluntarily economically inactive. As a result, we find polarization of precariousness of youth as 'highly precarious' and 'not precarious' youth have been increas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panel logit analysis, the most precarious group consists of male, younger and under-educated youth with elementary jobs, service jobs or sales jobs and with education service, housing and food service sectors. Therefore, policies which aims to promote just employment rate such as small-medium firms internship should be reconsidered and especially for service workers, quality of jobs should be improved in the service economy that the number of jobs in the sector keeps increasing.

Key words: youth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set theory,
service economy

E-mail:

이승윤 sophia.sy.lee@ewha.ac.kr

백승호 livevil@catholic.ac.kr

김미경 mignon2kim@naver.com

김윤영 yunyoungkim08@gmail.com

논문투고일: 2016년 12월 31일

논문심사일: 2017년 0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7년 02월 07일